

직장직능단체 공동사무실 마련

직장 직능연합단체들의 공동사무실이 마련됐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전국금융단체불교연합회, 전국전력불자연합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포교부장 상운스님, 이남기 공경 거래위원장 등 직장인 불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30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 중앙신도회 건물 2층에서 직장직능불자 공동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올해 신도회원의 활동과 직장직능 단체의 창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자 직장인들은 화평의 정신으로 국민화합을 이루고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사무실의 개소로 다양한 직장 직능 불자회를 하나로 묶어줄 공간이 생김에 따라, 단체인 연대사업, 지방조직 결성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직장 직능단체 창립을 추진할 불교신자들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향후 직장 직능단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불련 서울 경인지역 신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1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서울 경인지역 합동신년법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손화래 철도청장, 김중양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공불련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보, 손승태 감사원 제1사무차장 등 6명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노옥섭 회장은 "올바른 불자가 되면 공무원 본래의 도리를 다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며 "공무원 불자 모임의 전국적 조직건설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가 끝난후 공불련은 회원들에게 <불교입문> 150권을 나눠주었다.



광양시청불자회 1월13일 창립

전남 광양시청에 공무원불자회가 창립됐다. 광양시청불자회(회장 정정모)는 1월 13일 광양 보광사에서 보광사 주지 현관스님을 비롯 32명의 회원과 회원가족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현관스님(송광사 주지)은 "도선스님 등 역대 큰스님들이 수행했던 역사적인 지역에 불자회가 창립돼 기쁘다"며 "불법에 따라 항상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모범적인 불자 공무원임을 보여주도록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청불자회 창립법회에는 전남도청불자회 박재순회장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 시도불자회간 화합을 다졌다.

“한계 극복하자”...산사서 1박2일

창원 지원정비공업사 전직원 동계수련



△창원 지원정비공업사 전직원 44명이 종교를 초월하여 1월26-27일 밀양 표충사 동계수련대회에 참가하여 발우공양을 하며 한계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희유(希有)’라는 말이 있다. 흔하지 않고 매우 드문 것, 또는 고맙고 드물게 있는 것이란 뜻이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 진리를 전하는 일을 일컬어 ‘희유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1월 26-27일 밀양 표충사주지 혜오 설법전에서는 희유한 일이 일어났다.

창원 지원정비공업사(대표 최운철 52) 겨울수련회가 열린 이날, 설법전에 모인 지원정비공업사 44명 전 직원들은 일상과 종교를 떠나 산사에서의 1박 2일을 보냈다.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첫

날 일정에는 발우공양, 스님의 법문, 새벽예불, 좌선 등 일부 직원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한사람도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죽비소리에 맞춰 발우공양을 하고,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으며 새

벽 산사를 울리는 법고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다.

“발우공양은 스님들이 사용해 왔던 뷔페식 식사법으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그릇에 담고 불한초,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최윤철 사장은 발우공양에 앞서 발우공양의 진정한 의미가 ‘음식 욕심을 버리는 것’과 ‘음식의 귀함을 깨닫는 것’에 있다고 참가자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했다. 죽비에 맞춰 발우공양이 시작되자

이다. 그러나 모든 직원들은 “속세를 떠나 겨울 산사에서 보낸 1박 2일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자 자신의 한계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값진 기회”라는 최윤철 사장의 뜻에 공감, 진행되는 일정마다 온 마음을 기울여 함께 했다.

종교를 초월한 지원정비공업사의 산사 수련회는 91년 창업과 함께 시작되어 1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최윤철 사장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독특한 경영 철학으로 시작된 수련회는 IMF로 어려웠던 3년을 제외하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직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작업 완성도와 진철도를 높이는 정신재무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전국 5위안에 드는

천주교인도 발우공양·예불·좌선 91년 창업과 함께 시작...10년 역사

발우를 펴고 음식을 받는 직원들의 표정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발우를 행군 물을 모아 찌꺼기가 나오면 그 물을 나누어 마셔야 된다”는 최사장의 설명을 들은 후라 밥이나 반찬의 양을 가능하는 손질이 조심스럽다.

발우공양을 끝낸 장용수(43.창원 동읍) 공장장은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사찰 수련회로 동료애를 느낄 수 있고 불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식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좋다”고 말했다. 첫 수련회부터 빠짐없이 참여한 장공장장은 천주교 신자다.

무교인 최윤철 사장을 비롯, 대부분의 직원이 종교가 없거나 타종교인

1급 정비공업사로 성장한 것도 모두 사찰 수련회와 극기훈련을 통해 길러진 ‘마음가짐’ 덕분이라는 최사장의 설명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나 사람의 마음을 개발하지는 취지의 수련회는 새벽예불 후 산행을 시작, 아홉시경 동안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 속을 헤치는 지옥같은 산행을 마친 후 회향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내면을 울리던 법고소리를 기억하며 힘을 낸 창원지원정비공업사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한계를 산에 묻고 새롭게 태어나 일상으로 돌아왔다.

창원=천미희 기자

역 단위불자회 첫 창립

영등포지역 관리역 불자회 1월 30일 보문사에서 법회



처음으로 철도청 관리역 단위 불자회가 창립돼 철도인 포교활동에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구로역과 인천역간 19개역 불자역무원들로 결성된 영등포지역관리역불자회(회장 이정권(사진), 이하 영등포불자회)는 1월30일 부천 보문사 큰법당에서 인연 옴누리선원 종연스님과 회원 40여 명이 모여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이정권(송내역 소속) 사진회장은 “영등포지역역사단위불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전국연합체가 되도록 전 회원이 헌신의 노력을 다하자”며 “철도라는 일터에서 서로 만나게 된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인연을 가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창립준비모임을 가져온 영등포지역관리역불자회는 창립을 알리는 소식지를 발간하여 꾸준한 회원 확보, 1월 24일 창립법회 준비모임을 갖고 회칙 및 임원을 선출하는 등 불자회



△영등포지역관리역불자회는 1월30일 부천 보문사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창립에 박차를 가해왔다. 영등포지역관리역불자회가 창립됨에 따라 그동안 승무사무소, 차량정비창, 기관사승무소 중심으로 운영됐던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정동진, 이하 철불협)는 전국 400여 개 철도역을 관리하는 17개 관리역사 단위 지회 창립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철불협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철도인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단위 철도역 불자회 창립을 통한 조직확충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철우기자

우리 모임에선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정기총회

대한중석초경 석불회는 5일 화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석불회는 올해 ‘노숙자 무료 급식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매진하기로 했다.

한빛은 서울불자회 천수경공부

한빛은행 서울불자회는 7일 저녁 7시30분 본점 5층 강당에서 법현스님(종단협 사무국장)을 지도법사로 ‘우리말 천수경’ 교리법회를 개최한다. 한빛은행은 올해 5명의 회원을 1개 팀으로 나눠 팀제운영을 통한 유대관계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또 부산불자회는 17일 오전 9시 30분 양산 대성암에서 신년 야외법회를 봉행한다. 이에앞서 부산불자회는 3일 양산 애육원에서 정기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전력분야법회 육법공양

한국전력 분사 반야회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봉은사 대웅전에서 육법공양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는 분사뿐 아니라 재경지역 불자들이 참석하여 불자회 발전을 기원한다.

2002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 30년 전통 2000여 동문의 교계 최초의 불교 교양 대학 -

- 강의시간 3월 4일 개강 주 3일 출석, 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욱(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김중욱(동국대)
- 특별초빙교수 마일운스님(법패전승자)
- 교육과목
 - 1학년 1학기(14주) 불교역개론, 인도불교사, 불교경전개설, 불교문화특강
 - 2학기(14주) 원시불교, 아비달미(구사론), 변이사상, 불교의식실습
 - 2학년 1학기(14주) 유익사상, 중국불교사, 인국불교사, 연대불교윤리
 - 2학기(14주) 법역사상, 외역사상, 영토사상, 선사상, 우리말불교의식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재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졸불교 지도자 재일 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제)	· 합격자 개별통지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2월 20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입학식 2002년 3월 3일 오전 10시

대원불교대학에서 일할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 대 상 : 여사무원 0명
- 자 격 :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OA 사무가 가능한 자 [불교전공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 제출기한 : 2002년 2월 28일까지

大圓佛敎大學 학장 해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 756-7258
Homepage : www.idaewon.or.kr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형(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용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체계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기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형(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응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복통이 심해서 쉬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업무도 제대로 못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찌는 것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편과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혈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 755-9821

매달되는 증상엔 () 기피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력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면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울렁거리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온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땀나 감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